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0. Vol. 39, No. 4, 274-286

Original Article
© 2020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
eISSN 2733-4538

The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on Taijin-Kyofu-Sho and Social Anxiety: The Differential Mediating Process of Anger-In and Projection

Hye-Won Kim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social anxiety with concerns for offending others (Taijin Kyofusho Scale; TKS) compared to social anxiety disorder (SAD). For this purpose, 354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ed shame, anger-in, projection, TKS, and SAD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TKS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anger-in and proje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AD was not. Interestingly, for the simpl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TKS, projection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ut anger-in had non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AD, anger-in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ut projection had none. Finally, future research directions, clinical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Taijin Kyofusho, social anxiety, internalized shame, anger-in, projection

가해염려 사회불안(Taijin Kyofusho, TKS)은 사회불안장애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가해염려 사회불안은 DSM-IV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불안장애의 문화적 이슈 부분에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 특수적 증후군으로 소개가 되었으나(APA, 1994) DSM-5에 들어오면서 사회불안장애의 진단기준에 포함되었다. Lee, Shin과 Oh (1994)의 국내 연구는 내원한 사회공포증 환자들 중 32.2%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으로 진단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불안에 비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주요 특징을 밝히고 이를 사회불안의 특징과 비교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교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동양과 서양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집단주의/상호의존성과, 개인주의/독립성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았다(Kirmayer, Young, & Hayton, 1995; Takahashi, 1989). 하지만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존재가 보고되고 있다(Choy, Schneier, Heimberg, Oh, & Liebowitz, 2008; Lochner & Stein, 2003; Markus & Kitayama, 1991). 이로써 비교 문화적 요인이 아닌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H. J. Jung, Ahn, & Kwon, 2017).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1)]은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특징과 회피와 같은 행동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Nakamura, Kitanishi, Miyake, Hashimoto, & Kubota, 2002). 두 사회불안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수행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보이고, 특히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염려하며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 그러나 두 유형의 사회불안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Correspondence to Kee-Hwa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Bucheon, Korea; E-mail: psyclinic@catholic.ac.kr

Received May 19, 2020; Revised Jul 29, 2020; Accepted Aug 19, 202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20.

1) 가해염려 사회불안과의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일반 사회불안이라고 명명하고자 함.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적절한 특성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집단 및 가족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한다(Maeda & Nathan, 1999). 반면 일반 사회불안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당황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R. A.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 & Harada, 1997). 선행연구들은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eon & Lee, 2017; Jung et al., 2017; Nagata et al., 2011; Nakamura, 1997). E. J. Kim과 Cho (2008)의 연구에서는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비해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표출 태도 중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며, 수평적 개인주의가 적은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과 Lee (2017)의 연구에서는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사회불안 집단과 비교해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초점이 더욱 역기능적임이 나타났다. Jung 등(2017)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추론편향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일반 사회불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나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이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는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 문제가 되는 다양한 정신병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수치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특히 일반 사회불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시사되고 있다(Gilbert, 2000; Hedman, Ström, Stünkel, & Mörtberg, 2013; Mills, 2005; Seo,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은 총체적인 자기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며, 자신을 부적절하고 매우 작게 느끼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이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부적절한 존재라고 왜곡해서 인식하며(M. K. Kim & Hyun, 2013), 자기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인해 종종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한다고 밝혀졌다(Lewis, 1971). Jung 등(2017)의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피해를 받은 후 수치심, 열등감을 느낀 사람들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증상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Noguchi (2011)의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뿐만 아니라 가해염려 사회불안과도 관련됨을 입증하였었다. 또한 M. J. Kim과 Kim (2018)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쉽게 수치심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Won, 2006).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수치심은 일반 사회불안뿐만 아니라 가해염려 사회불안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때, 어떤 매개과정이 작동하며, 그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함으로써 두 사회불안의 발현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 표출을 하기 보다는 분노 억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는데(H. S. Jung & Jung, 2011; Sung & Park,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분노 억제를 통해 분노 표출이 나타남이 밝혀졌다(Hwang & Yon, 2018; Im & Hong,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역기능적 방식으로 표현하며 특히 분노억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며, 이러한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Breen & Kashdan, 2011; Erwin,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Fitzggibons, Franklin, Watlington, & Foa, 1997; Y. H. Kim & Lee, 2013).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염려하므로, 직접적인 분노표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E. J. Kim & Cho, 2008). 최근 국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분노 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Jung et al., 2017; Kim & Cho, 2008).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일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분노억제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숙하고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결과들이 있다(Lee, 2008; Nam, Cho, & Lee, 2006; Nathanson, 1992). Gilbert, Allan과 Goss (1996)의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경험한 개인은 일차적으로 억압이라는 형태로 방어를 하게 되지만, 수치심을 처리하는 방어의 양상이 다양하다고 보았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건 잘못했다'하는 형태의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수치심 감정을 회피하는 것,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대상을 공격하는 분노 행동, 자신의 주관적 경험인 수치심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경멸,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심, 부적절한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자책으로 수치심 대신 우울을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대치의 형태로 방어를 할 수 있다. 즉 수치심에 대한 방어는 단순히 회피하고 철회하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고,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과도 관련된다. Lewis (1971)는 수치심 유발로

인해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면, 자신에게 적대감과 비난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향했던 적대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타인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투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져 이러한 방어가 부적응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ursten, 1973; Lee, 2008). 이는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회피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모욕감, 분노로 인해 타인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투사적 방어 경향도 나타냄을 시사한다(Harder & Lewis, 1987; Lewis, 1971).

Ko와 Ahn (2003)은 분노억제가 투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화가 난 상태이지만,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고,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회피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특성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떠오르는 반동효과가 생겨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해지고, 이러한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해진 특성이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Newman, Duff와 Baumeister (1997)는 분노를 억압하는 집단이 분노감과 관련 있는 사고를 의식해서 없애려 하면 할수록, 만성적으로 접근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모호한 행동을 해석하는데 사용되어 사실은 자신이 가진 위협적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로 투사, 귀속시키게 된다. Schimel, Psyszczynski, Greenberg, O'Mahen과 Arndt (2000)의 연구에서도 분노 억압자들이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사가 일어났음을 제안하였다. Ko와 Ahn (2003)의 연구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자신이 그러한 인물과 얼마나 다른지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방어기제 투사를 평가했는데, 분노-억압 집단이 투사를 높게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분노 억제를 많이 할수록 방어기제 투사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억제된 분노를 타인에게 투사해 '타인이 나를 적대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을 하였다(Jung et al., 2017; Kim & Cho, 2008; Lee, Beak, Noh, Oh, & Shin, 1999) 그렇지만 이는 추론일 뿐 투사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에 경험적 합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일반 사회불안과 투사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Jung 등(2017)의 연구에서 적대적 추론편향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만 영향을 주는 반면 일반 사회불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가해염려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받는 위협을 역으로 투사해서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지적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통적인 경로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가해염려 사회불안에는 투사라는 매개변인이 고유하게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사를 증가시켜 가해염려 사회불안을 증가시키는 경로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와 투사를 통하여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작동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로들을 포함한 가설모형과 함께 모든 변인 간 경로를 유의한 것으로 상정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모형 및 경쟁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라는 매개변인이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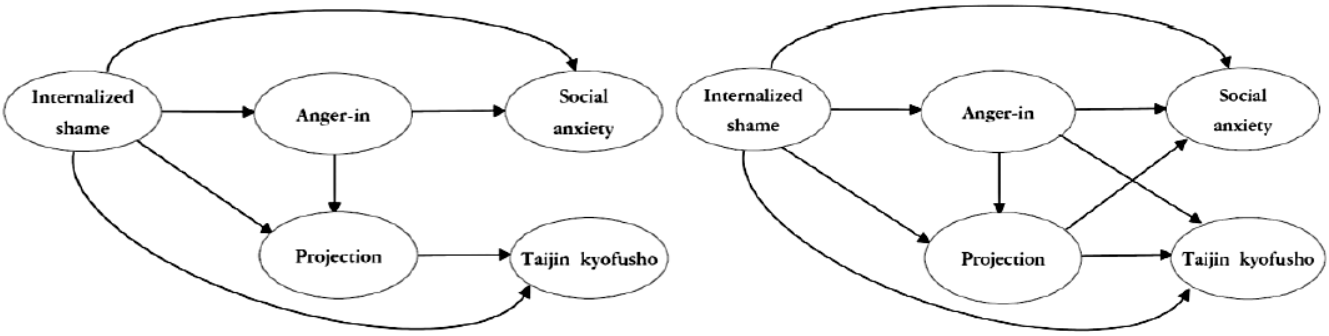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s model and competing model.*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행 연구들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되어오던 투사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대해 연구자의 구두 설명 후 설문지와 함께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배포하였고, 연구 참가에 동의할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1,000원 상당의 보상품이 제공되었다.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하였거나,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여 설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동의서 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서명이 없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경우 등 16부를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최종 35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135명(38.1%), 여자 219명(61.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0.95세(SD = 2.19)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승인번호: 1040395-201807-05).

측정 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를 사용하였다. 이는 Cook (1987)이 개발하고, Lee와 Choi (2005)가 번안, 타당화 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문항은 수치심을 측정하고, 6문항은 자존감을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Cook (2001)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의 4가지 하위요인이 확인되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개 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각 문항은 평소 자신 스스로에게 드는 느낌과 생각에 대한 평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 STAXI-K)

분노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이 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Hahn, Chon과 Lee (1997)가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이는 개인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24문항(분노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K-DSQ)

방어기제 투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DSQ)를 사용하였다. 이는 Bond, Gardner, Christian과 Sigal (1983)이 개발한 것을, S. H. Cho (1999)가 재구성 및 타당화한 척도이고, 총 16개의 방어기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이다. 이 중 투사를 측정하는 문항은 9개이다. 그러나 Cho (1999)의 연구에서는 투사를 측정하는 마지막 문항이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아 K-DSQ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사를 측정함에 있어서 마지막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어기제 투사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2로 확인되었다.

한국형 가해염려 사회불안 척도 단축형(Taijin Kyofusho Scale-17, TKS-17)

가해염려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가해염려 사회불안 척도 단축형(TKS-17)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Kleinknecht 등(1997)이 개발했으며, 자신의 부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불편해할 것을 염려하여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는 가해염려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7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Y. R. Cho와 Kim (2005)이 타당화 하여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가해염려 사회불안 척도를 17개 문항으로 구성한 단축형 척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일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SAS)를 실시하였다. 이는 Liebowitz (1987)가 DSM에서 정의되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척도로써, 본 연구에서는 Park (2003)이 국내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ark (2003)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자기주장 상황, 상호작용 상황, 낯선 사람과 대면 상황, 발표상황, 수행상황으로 나누어졌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총 24문항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Mplus 6.12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카이자승(χ^2)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카이자승(χ^2)검증은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지 못하고, 표본수가 클 경우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FI, TLI, RMSEA, SRMR과 같은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R. B. Kline, 2010). CFI, TLI는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고 .95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Bentler, 1990; Hu & Bentler, 1999), RMSEA와 SRMR은 .05 이하일 때 우수한 적합도, .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일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일반 사회불안에 이르는 과정에 분노억제와 투사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별 경로계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매개효과 역시 반드시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Bootstrapping이 권장된다(Shrout & Bolger, 2002).

잠재변인 측정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은 각 하위요인을 측정지표로 삼았고, 분노 억제, 투사, 가해염려 사회불안은 하위 척도가 없으므로 문항묶음 형성(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Ru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 이상의 측정치가 권장되는데(Raykov & Marcoulides, 2000) 단일 측정치로 잠재변인을 측정할 때보다 다중 측정치로 측정할 때 타당도나 신뢰도가 더 높고, 문항 묶음을 사용하면 측정변수에 대해 더 높은 신뢰성과 정상분포 가능성, 추정오차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Bandalos, 2002; Schumacker & Lomax, 1996). 문항묶음을 하기 위해 우선 요인 개수를 한 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비슷해지도록 개별 문항의 요인계수를 바탕으로 각 묶음점수에 할당하는 균형할당방법을 사용하였다(Seo, 2010).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투사,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각각 3개의 문항묶음을 형성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3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T. J. Kline, 2005).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 = 454.672$ ($df = 125$, $p < .001$); CFI = .921; TLI = .903; RMSEA = .086, 90% CI[.078, .095]; SRMR = .04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잠재변인과 그것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높은 관련성이 권장되는데,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일 때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R. B. Kline, 2010). 본 연구에서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0.75–0.91, 분노억제가 0.63–0.76, 투사가 0.57–0.88,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0.70–0.95, 일반 사회불안이 0.73–0.82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18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설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05.606$ ($df = 126$, $p < .001$); CFI = .933; TLI = .918; RMSEA = .079, 90% CI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N = 354)*

		1	2	3	4	*M*	*SD*	Skewness	Kurtosis
1	Internalized shame					1.39	0.53	0.71	0.20
2	Anger-in	.62***				2.18	0.58	0.38	0.08
3	Projection	.75***	.62***			2.17	0.85	1.02	1.83
4	Taijin kyofusho	.71***	.50***	.74***		2.16	1.04	1.11	0.68
5	Social anxiety	.65***	.55***	.60***	.63***	2.04	0.55	0.37	0.97

***$p < .001$.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

Table 2. *Comparison of Goodness of Fit*

Model	χ^2	*df*	*p*	CFI	TLI	RMSEA	SRMR
Hypothesis model	405.606	126	.000	.933	.918	.079 [.071, .088]	.049
Competing model	405.464	124	.000	.932	.916	.080 [.071, .089]	.049

Table 3.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

	IV	*DV*	Standardized estimate	*S.E.*	*p*-value
Hypothesis model	Internalized shame	Anger-in	.735	.040	.000
	Internalized shame	Projection	.484	.073	.000
	Internalized shame	Taijin kyofusho	.569	.082	.000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420	.080	.000
	Anger-in	Social anxiety	.398	.084	.000
	Anger-in	Projection	.494	.075	.000
	Projection	Taijin kyofusho	.302	.086	.000
Competing model	Internalized shame	Anger-in	.736	.040	.000
	Internalized shame	Projection	.481	.075	.000
	Internalized shame	Taijin kyofusho	.565	.085	.000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418	.106	.000
	Anger-in	Taijin kyofusho	-.043	.115	.709
	Anger-in	Projection	.497	.078	.000
	Anger-in	Social anxiety	.384	.146	.009
	Projection	Taijin kyofusho	.346	.146	.018
	Projection	Social anxiety	.015	.183	.937

[.071, .088]; SRMR=.049로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역시 χ^2=405.464 (*df*=124, *p*<.001); CFI=.932; TLI=.916; RMSEA=.080, 90% CI[.071, .089]; SRMR=.049로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쟁모형은 가설모형의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모형 간 내포관계(nested relation)를 이루고 있고,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이 모두 적합도 지수의 준거를 만족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거의 없어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는 0.142로 자유도 $\chi^2_{0.05}(2)$의 값에 해당하는 5.991보다 작기 때문에, 간명성의 원리에 의하여 더 간결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면 되므로(G. S. Kim, 2007), 가설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가설모형에 제시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경쟁모형에서는 가설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노억제→가해염려 사회불안의 경로, 투사→일반 사회불안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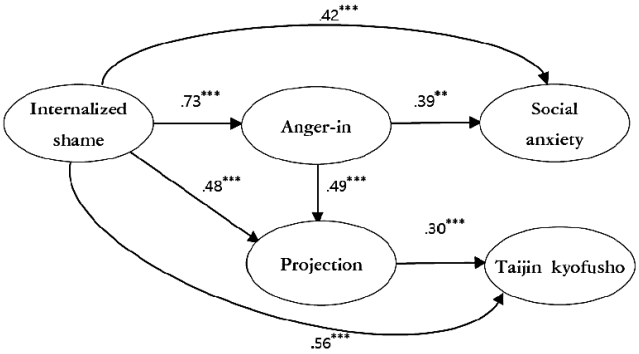

Figure 2. *Final model (including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05. **p<.01. ***p<.001.*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5,000회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상한 값, 하한 값을 도출하였다. Shrout와 Bolger (2002)는 Bootstrapping실시 시,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와 투사를 매개로 가해염려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경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를 매개로 일반 사회불안으로

Table 4. *Results of Mediation Analyses*

Path	95% Bias Corrected CI	
	Lower	Upper
Internalized shame→Anger-in→Social anxiety	0.064	0.201
Internalized shame→Projection→Taijin kyofusho	0.085	0.239
Internalized shame→Anger-in→Projection→Taijin kyofusho	0.027	0.080
Internalized shame→Projection→Social anxiety	-0.022	0.085
Internalized shame→Anger-in→Taijin kyofusho	-0.048	0.062
Internalized shame→Anger-in→Projection→Social anxiety	-0.008	0.044

가는 간접경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사를 매개로 가해염려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지 확인해 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와 투사를 매개로 일반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경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를 매개로 가해염려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경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사를 매개로 일반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해염려 사회불안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확인하고, 그 경로의 차이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 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투사, 가해염려 사회불안, 일반 사회불안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Bradshaw, 2005; Breen & Kashdan, 2011; Bursten, 1973; Jung et al., 2017; Kim & Cho, 2008; Ko & Ahn, 2003; Lee, 2008; Lewis, 1971; Newman et al., 1997; Noguchi, 2011; Schimel et al., 2000; Sung & Park, 2018). 이러한 변인들 간 관련성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투사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일반 사회불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들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 투사를 거쳐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매개효과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투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반면,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는 상반되게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반면, 투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방어기제 투사를 매개하여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방어기제 투사를 많이 사용하며, 이는 가해염려 사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특징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는데(Kim & Cho, 2008; Lee & Chung, 1984; Millon, 1986a, 1986b; Song & Park, 2009),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주었다.

가설모형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노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Jung et al., 2017; Kim & Cho, 2008). 그렇지만 이러한 정적 상관에도 불구하고 분노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분노억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Table 1에서 제시했듯이 $r = .50$ ($p < .001$)으로 유의한 상관이 존재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제한 후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간 편상관계수를 추가 분석해 보았을 때 $r_p = .11$ ($p < .05$)로 상당히 낮아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

진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Hotelling's *t*-test와 Steiger's *Z*-test를 이용하여 단순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5.61$, $p < .001$; $Z = 5.30$, $p < .001$). 즉,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제한 편상관계수가 단순상관계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분노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Noguchi, 2011). 또 다른 해석적 가능성은 분노억제가 투사라는 강력한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분노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투사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억제된 분노가 투사되어 표현되는 경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나(Ko & Ahn, 2003; Newman et al., 1997), 분노억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투사하는 것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왔던 선행연구결과들(Kim & Cho, 2008; Lee & Chung, 1984; Millon, 1986a, 1986b; Song & Park,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투사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투사를 통제한 후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편상관계수를 추가 분석해 본 결과,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간의 유의했던 단순상관계수($r = .50$, $p < .001$)가 편상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_p = .07$, $p = .17$). 이와 같은 결과는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투사가 기여하는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결과는 분노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투사를 통해 가해염려 사회불안 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로 볼 때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일반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분노억제를 매개하여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일반 사회불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Bradshaw, 2005; I. J. Choi & Sim, 2010; Jung & Jung, 2011; Sung & Park, 2018).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Harder & Lewis, 1987; Kim & Hyun, 2013; Lutwak & Ferrari, 1997) 및 분노억제와 일반 사회불안 간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Breen & Kashadan, 2011; Erwin et al., 2003; Kim & Lee, 2013)과 일치한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의 관계를 분노억제가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매개변인으로서 분노억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투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투사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모형에서 가정한 바와 일치하는 것이고, 가해염려 사회불안에는 투사의 효과가 유의했던 것과는 차이 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투사의 매개적 역할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투사의 매개적 역할은 유의하다는 차이점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투사와 일반 사회불안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투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투사와 일반 사회불안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Table 1에서 제시했듯이 $r = .60$ ($p < .001$)으로 유의한 상관이 존재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제한 후 투사와 일반 사회불안 간 편상관계수를 추가 분석해 보았을 때 $r_p = .22$ ($p < .001$)로 상당히 낮아진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Hotelling's *t*-test와 Steiger's *Z*-test를 이용하여 단순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6.16$, $p < .001$; $Z = 5.59$, $p < .001$). 즉, 투사와 일반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제한 편상관계수가 단순상관계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투사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 온 기존 연구는 주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자신의 열등하고 부족한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고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일반사회불안을 설명하고 있다(Kim & Hyun, 2013). 수치심 경험은 그 자체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일반 사회불안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I. S. Choi & Choi,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일반 사회불안과 투사 간에는 정적인 관계성이 존재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 자체가 일반 사회불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연속매개효과에 있어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

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연속매개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연속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가 순차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추론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ung et al., 2017; Kim & Cho, 2008; Lee et al., 1988; Song & Park, 2009).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피해를 주는 것을 염려하여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특징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투사로 이어지게 되어 가해염려 사회불안으로 나타난다는 추론에 대해 경험적인 합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적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분노 경험과 분노억제 간 내적 갈등으로 인해 투사가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생겨날 수 있다(Jung et al.,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연속매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투사와 일반 사회불안 간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분노억제가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했던 바, 내면화된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아지지만 이것이 일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억제된 분노를 투사하기보다는 다른 양상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Choi와 Choi (2013)의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어떤 방식이나 회피, 철수라는 대처방식을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회피성 성격장애와 같은 변인과 상관이 높아진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투사가 아닌 다른 요인들을 통하여 일반 사회불안으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분노 억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억제된 분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지 보다 세밀한 경로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akamura (1997)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인식인 타인-중심 인지와, 타인이 항상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인지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반 사회불안의 주의 초점이 부정적 사회적 단서에서 점차 내부감각 정보로 옮겨가는 것(Pineles & Mineka, 2005)과는 다른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억제된 분노를 타인에게로 투사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일반 사회불안에서는 투사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타인 초점적 인지를 통해 부정적 사회적 단서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억제된 분노가 높아지면서 일반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투사하거나 억제된 분노를 투사하여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볼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분노억제가 관련되는 것은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가해염려 사회불안에만 투사의 영향이 고유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억제가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투사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만 배타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경우 분노 억제를 많이 할수록 투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불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상황을 피하게 되는 반면, 일반 사회불안의 경우 분노 억제를 많이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투사가 매개역할을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간의 차별적 특성에 대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치료 및 예방에서 개입 방향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투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객관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위협을 피하려고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으로 치료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들의 의심, 적대감, 거절과 같은 감정에 대한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자가 왜 실제로는 자신에게 속한 다양한 감정이나 지각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Clark, 2002, 2005).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하여 억제된 분노를 투사적 방어기제로 다루는 대신 보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보다 객관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억제된 분노 그 자체에 대해 개입함으로써 일반 사회불안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투사가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여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심리적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고, 가해염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

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는 대부분 문화 특수적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특성들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관계에 있어서 투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선행연구들에서의 논리적 추론에 경험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분노억제와 가해염려 사회불안간의 관계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Jung et al., 2017; Kim & Cho, 2008; Lee et al., 1988; Sung & Park, 2018)에서는 억제된 분노를 타인에게로 투사하여 가해염려 사회불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추론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추론은 경험적인 근거가 부족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추론에 합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방향을 살펴보겠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 성인들, 임상환자 집단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집단 및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수검자가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왜곡하여 보고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제한점은 방어기제 투사를 측정하는데 있어 더욱 한계가 되었을 수 있다. 방어기제는 직접 볼 수는 없고 방어기제가 일으키는 체계적인 왜곡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Vaillant, Bond, & Vaillant, 1986).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한 투사는 외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미묘한 내적인 역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방어기제 투사의 일면만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 외의 임상적 관찰을 통한 방어기제 평가 혹은 실험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결과가 산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인들 간 논리적 관계성에 기초한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일 시점의 설문연구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변인들간 인과적 관계성이 규명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 사회불안 및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들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 contributions statement

Hye-Won Kim, graduate student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ho is now a clinical psychology intern at Department of Neur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designed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and led manuscript preparation. Kee-Hwan Park, professor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rved as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research grant and supervised the research process. All authors provided critical feedback, participated in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approved the final submission.

Referenc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Bradshaw, J. (2005).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Recovery classics edition. Deerfield Beach, State of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

Breen, W. E., & Kashdan, T. B. (2011). Anger suppression after imagined rejection among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 879-887.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30-258.

Bursten, B. (1973). Some narcissistic personality typ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4*, 287-300.

Cho, S. H. (1999). A validational study of Korean version of defense styl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 115-137.

Cho, Y. R., & Kim, E. J. (2005), Social phobia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Korean version of TK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397-411.

Choi, I. J., & Sim, H. S. (2010). The influence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express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 479-492.

Choi, I. S., & Choi, H. N. (2013).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 2799-2815.

Choy, Y., Schneier, F. R., Heimberg, R. G., Oh, K. S., & Liebowitz, M. R. (2008). Features of the offensive subtype of Taijin-Kyofu-Sho in US and Korean patients with DSM IV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5*, 230-240.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State of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Erwin, B. A., Heimberg, R. G., Schneier, F. R., & Liebowitz, M. R. (2003). Anger experience and expression in social anxiety disorder: Pretreatment profile and predictors of attrition and response to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Behavior Therapy, 34*, 331-350.

Gilbert, P. (2000). The relationship of sham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role of the evaluation of social rank.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 174-189.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3*, 23-34.

Hahn, D. W., Chon, K. K., & Lee, C. H.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 60-78.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6*, 89-114.

Hedman, E., Ström, P., Stünkel, A., & Mörtberg, E. (2013). Shame and guilt in social anxiety disorder: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associ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Public Library of Science, 8*, p. e61713.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Hwang, J. Y., & Yon, K. J.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displaced aggress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147-166.

Im, J. W., & Hong, H. Y. (2016). The influence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nge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4*, 6-75.

Jeon, H. J., & Lee, H. J. (2017). The self and other representations and self-focus attributes of college students with social anxiety with concerns for offending others.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3*, 67-94.

Jung, H. J., Ahn, J. K., & Kwon J. H. (2017).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self-representation, anger expression and hostility reasoning biases on taijin kyofusho.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7*, 315-339.

Jung, H. S., & Jung, N. W. (2011). Internalized shame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perfectionism and anger expression styl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 89-107.

Kim, E. J., & Cho, Y. R. (2008), The relationship of social phobia with the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anger-related variabl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613-632.

Kim, G. S., (2007).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 Hannarae academy.

Kim, M. J., & Kim E. J. (2018).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ijin Kyofusho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isolation.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4*, 637-655.

Kim, M. K., & Hyun, M. H.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161-176.

Kim, Y. H., & Lee, Y. J. (2013).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validation of social anxiety, empathy, social skills, anger-expressive for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affect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 1587-1604.

Kirmayer, L. J., Young, A., & Hayton, B. C. (1995). The cultural context of anxiety disorder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8*, 503-521.

Kleinknecht, R. A., Dinnel, D. L., Kleinknecht, E. E., Hiruma, N., & Harada, N. (1997). Cultural factors in social anxiety: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and Taijin Kyofusho.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157-177.

Kline, R. B. (2010). Promise and pitfall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ifted research. In B. Thompson & R. F. Subotnik (Eds.), *Methodologies for conducting research on giftedness* (p. 147-169).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Ko, Y. G., & Ahn, C. Y. (2003). The defensive projection of anger-repression group.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641-660.

Lee, I. S., & Choi, H. L. (2005).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

therapy, 17, 651-670.

Lee, J. Y. (2008). The relationship of internalized shame, defense styl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 353-373.

Lee, S. H., Beak, S. B., Noh, K. S., Oh, K. S., & Shin, Y. C. (1999). Personality factor and defense mechanism in social phobia patient.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y Association, 38*, 1254-1261.

Lee, S. H., Shin, Y. C., & Oh, K. S. (1994). A clinical study of social phobia for 10 years.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y Association, 33*, 305-312.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 419-438.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Lochner, C., & Stein, D. J. (2003). Heterogeneit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literature review.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1*, 113-132.

Lutwak, N., & Ferrari, J. R. (1997). Shame-related social anxiety: Replicating a link with various social interaction measures. *Anxiety, Stress, and Coping, 10*, 335-340.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ills, R. S. (2005). Taking stock of the developmental literature on shame. *Developmental Review, 25*, 26-63.

Nagata, T., Matsunaga, H., van Vliet, I., Yamada, H., Fukuhara, H., Yoshimura, C., & Kiriike, N. (2011). Correlations between the offensive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nd personality disorder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5*, 341-348.

Nakamura, K. (1997). Taijin-kyofu-sho and withdrawal.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26*, 1169-1176.

Nakamura, K., Kitanishi, K., Miyake, Y., Hashimoto, K., & Kubota, M. (2002). The neurotic versus delusional subtype of taijin-kyofu-sho: Their DSM diagnos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6*, 595-601.

Nam, K. S., Cho, S. M., & Lee, H. J.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ham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1063-1085.

Nathanson, D. (1992). *Shame and pride: Affect, sex, and the birth of the self.* New York, State of New York : Norton.

Newman, L. S., Duff, K. J., & Baumeister, R. F. (1997). A new look at defensive projection: Thought suppression, accessibility, and biased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980-1001.

Noguchi, R. J. P. (2011). *Cultural factors in the dysregulation of shame and embarrassment: Emotions in social anxiety and Taijin Kyofush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Virginia, USA.

Park, S. Y. (2003). *The difference of social anxiety sub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anxiety-provoking situ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ineles, S. L., & Mineka, S. (2005). Attentional biases to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of potential threat in social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314-318.

Raykov, T., & Marcoulides, G. A. (2000). *A first course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chimel, J., Pyszczynski, T., Greenberg, J., O'Mahen, H., & Arndt, J. (2000). Running from the shadow: Psychological distancing from others to deny characteristics people fear in them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46-462.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Erlbaum.

Seo, E. B.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and experiential avoi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Korea.

Seo, Y. S.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distinction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 1147-1168.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Song, J. Y., & Park, K. H. (2009). The sociocultural variables influencing social anxiety with concern for offending others : Focusing on che-myeon, nun-chi, and self-constru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329-343.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89-108). New York, State of New York: Springer-Verlag.

Sung, S. Y., & Park, K. H.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uicidal ideat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anger suppression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209-230.

Takahashi, T. (1989). Social phobia syndrome in Japan. *Comprehensive Psychiatry, 30*, 45-52.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Vaillant, G. E., Bond, M., & Vaillant, C. O. (1986).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786-794.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

apy, 28, 19-27.

Won, J. S. (2006).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on depression: the mediational role of the fear of negative appraisal, subjective frustration experience,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초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노억제와 투사의 차별화된 매개효과

김혜원·박기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까봐 심한 두려움을 보이는 가해염려 사회불안과 일반 사회불안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매개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투사, 가해염려 사회불안, 일반 사회불안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연속매개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일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와 투사의 연속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에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해염려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투사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반면,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는 상반되게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분노억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인 반면, 투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일반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며, 선행연구들에서 미흡했던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다 깊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가해염려 사회불안, 사회불안,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투사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2